



정부-기업, 2000년 문제 해결 나서



▲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일컫는 '2000년문제.'

'밀레니엄 버그' 혹은 약칭 'Y2K 문제' 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 별레를 퇴치하지 못하면 은행계좌부터 비행기 예약시스템까지 우리의 생활 기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0년문제가 잉태된 것은 60, 70년대. 당시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여 비싼 저장장치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프로그램상의 연도표시를 전체 4자리 대신 끝 2자리만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전통은 90년대까지 계속됐고 그 결과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프로그램의 연도인식 범위를 4자리로 늘리거나 현재의 2자리를 서기 2000년의 연도로 인식하도록 코드를 덧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많은 프로그램 전문가와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작업이다.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가트너그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6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수정한 뒤 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2000년문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를 구성, 범 정부차원에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중앙부처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시스템 현황 및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 추진실태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99년 상반기까지 이를 해결키로 했다. 이에 앞서 컴퓨터 2000년문제

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권은 일찌감치 적극 대처해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해결했거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주택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새로운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파워넷'으로 재구축하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4자리 연도표기로 전환, 기간업무에 대해 2000년문제를 거의 해결한 상태.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전화기, 팩스, 복권검증기 등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문제여부를 파악한 뒤 수정 작업을 실시, 올 12월까지 모든 세부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일은행은 모든 고객의 거래기록을 담고 있는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의 연도는 4자리로 정의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자리로 표기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추진, 올해 말까지 완전히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흥증권도 2000년문제가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 및 이용료 계산, 채권 단가 및 수익률 계산, 기간개념 추가검색 및 차트분석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미 4자리 컴퓨터 연도채택을 전제로 95년부터 각종 전산시스템을 재구축,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

사는 하드웨어 및 각종 소프트웨어에서 2074년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동아생명 등 금융기관과 물류업체인 범양상선 등도 컴퓨터 2000년문제를 앞서 해결했거나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티엄 II 노트북PC 붐물



▲ 인텔 펜티엄 II 칩을 탑재하고 DVD-롬 드라이브를 설치한 대우통신의 노트북PC '솔로CN610'

인텔이 최근 노트북PC용 펜티엄 II 233MHz, 266MHz 중앙처리장치(CPU)를 발표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등 컴퓨터 업체들이 이를 채용한 최고성능의 노트북PC를 일제히 발표하고 나섰다.

삼보컴퓨터는 14.1인치 대화면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와 266MHz의 펜티엄 II 칩을 탑재한 '드림북 이그제큐티브 E58DM'을 개발, 3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16MB SD램, 데이터 전송속도를 기존제품보다 2배 정도 높은 울트라 DMA 방식의 4GB HDD, 24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내장했다. 특히 중앙처리장치(CPU)와 관련된 칩셋을 하나의 모듈로 설계해 새로운 CPU가 개발될 경우 데

스크톱PC처럼 이를 꽂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6백30만원(부가세별도).

삼성전자는 13.3인치 TFT-LCD, 32MB SD램, 56Kbps 모뎀 등을 내장한 '센스 920'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차세대 멀티미디어 저장매체인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롬 드라이브와 소프트웨어로 MPEG2를 채택, 고품질의 DVD영상과 5채널의 디지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또 각 부품의 전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전력 소모효율을 20% 이상 높였으며 2개의 배터리를 함께 장착할 수 있어 충전없이 8시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은 IMF 한파에 따라 고가 노트북 PC의 시장성이 없다고 보고 판매를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대우통신은 14.1인치 TFT-LCD, 32MB 메모리, 울트라 DMA 방식의 3.2GB HDD, DVD롬 드라이브 등을 채용해 데스크톱PC에 못지 않은 고성능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솔로 CN610'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3핑거 및 휠 터치패드를 장착해 화면 상하 움직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을 우레탄 코팅으로 처리해 충격과 긁힘, 미끄럼 등을 최대

한 방지했다. 대우는 3·4분기중에 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윈도95, NT만 해킹하는 도구 등장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NT와 윈도95를 운영체제(OS)로 사용하는 컴퓨터만을 골라 작동을 중단시키는 해킹도구가 등장,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 관련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뉴티어,' '봉크,' '보잉크' 등으로 불리는 이 해킹도구를 설치한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 공격대상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실행하면 상대방 컴퓨터 화면에 아무런 아이콘도 없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죽음의 블루스크린'이 뜨면서 컴퓨터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 특히 윈도NT의 경우 네트워크의 서버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같은 해커들의 습격을 받을 경우 네트워크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 기업 등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미 항공우주국



▲ 윈도 계열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컴퓨터만을 골라 공격하는 해킹도구가 등장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NASA)과 미 해군 그리고 대학에 있는 컴퓨터중 MS의 윈도우NT와 윈도우95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도 이 도구를 사용한 해커들의 습격을 받고 작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공격으로 작동이 중단된 컴퓨터들은 다시 부팅시키면 곧바로 이상없이 작동되고 데이터 손실이나 다른 영구적 피해가 없었다고 해당기관의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 해킹도구의 공격대상이 된 교육기관은 버클리, 로스앤젤리스, 샌디에이고, 어빈 등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들, 미네소타의 트윈시티

즈대학, MIT대학, 코넬대학, 워싱턴대학, 오스틴의 텍사스대학, 그리고 나사의 연구협력기관인 메디슨의 위스콘신대학 등의 컴퓨터도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캘리포니아 포인트로마, 남캘리포니아 찰스턴, 버지니아 놀포크의 해군 컴퓨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MS는 이같은 공격에 대비해 1월부터 패치프로그램(오류수정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아직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야 이같은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입수, 급히 사내게시판에 올리고 패

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PC사용자들이 많아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대법마을’ 뿔다



▲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대법마을'의 초기화면

법원의 판례와 재판 진행상황, 등기신청 및 호적안내, 각종 경매·입찰공고 등 법원과 재판에 관한 주요 정보를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금방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마을'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개설,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법원과 재판에 관한 각종 정보와 민원안내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전국 각급 법원소개와 종합 법률정보, 민원안내, 재판정보, 법원도서관 등 모두 11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법률정보 항목에 들어가면 법원 내부 판례검색 시스템인 '판례마을'에 들어있는 47년 이후 현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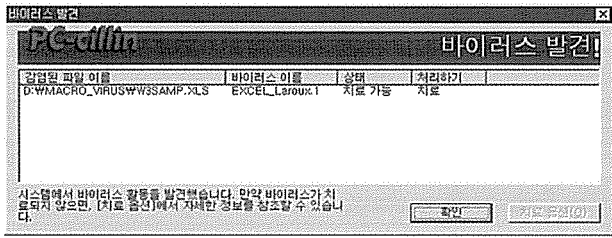
의 대법원 판례 3만5천여건을 모두 찾아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와 하급심의 주요 판례, 법령정보 등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대강의 일시, 또는 사건명을 알면 관련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법률정보 항목에 들어가 '정리해고'라는 주제를 입력하면 관련 판례가 차례로 화면에 뜬다. 또 재판정보 항목을 통해 민·형사사건이나 집행사건, 행정사건 등의 재판기일과 재판정, 재판결과 등 재판의 진행상황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민원안내 항목은 법원 및 등기소의 관할과 소재지, 소송절차와 등기신청 안내는 물론, 경매·입찰정보도 그때그때 제공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발급 시스템'을 개발,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 매크로바이러스 비상

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미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엑셀과 워드프로세서를 감염시키는 '매크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백신프로그램 업체에 따르면 최근들어 기업의 업무용 컴퓨터를



▲ 백신프로그램이 '라룩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MS엑셀 문서를 찾아낸 화면.

감염시키는 매크로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월에는 국산 엑셀매크로바이러스인 '한국변형 라룩스' 바이러스까지 등장,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바이러스는 일반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MS워드'와 보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인 '엑셀'을 공격하는 두가지로 나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용중인 컴퓨터 화면에 별도의 창이 떠 문서작성 작업을 방해받게 된다.

특히 한국변형 라룩스바이러스는 오전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8시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 매크로바이러스를 잡아라'라는 메시지를 컴퓨터 화면에 내보내면서 작성중인 문서를 변형시킨다. 또 이 메시지를 작성중인 문서에 자동으로 삽입시킨다.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연구소의 바이러스신호센터에 접수된 워드 매크로바이러스에 대한 문의가 3백건을 넘었고 엑셀 매크로바이러스 관련 문의는 1천5백여건을 넘어서는 등 감염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회사 사업계획서 및 회계 파일이 라룩스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

하는 사례가 많았고, 치료 후에도 미처 치료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다시 발견돼 계속 피해를 입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변형 라룩스'라는 국산 엑셀 매크로바이러스는 H사의 사내 전자게시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모 중공업의 서버에 침범, 사내 통신망 전체를 중단시켜 업무마비까지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매크로바이러스는 지난 95년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2천여종이, 국내에서는 21종이 발견됐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전문업체들은 현재 시중에 발표된 백신프로그램들이 모두 국내에서 발견된 한국변형 라룩스 등 대부분의 매크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웹 검색엔진 성공률 낮다



▲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핫봇(HotBot)의 홈페이지.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상의 자료 검색을 위해 이용하는 각종 검색엔진들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실제 이용가능한 정보의 일부분 밖에서 다시 발견돼 계속 피해를 입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최근호에 게재된 미국 NEC연구소(뉴저지주 프린스턴 소재) 컴퓨터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색엔진들이 찾아내는 정보의 양에도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 널려있는 약 3억2천만 웹페이지중 가장 나은 검색결과를 보인 핫봇조차 불과 34%의 자료추출 능력을 보인데 그쳤으며 가장 나쁜 결과를 보인 라이코스 3% 수준이었다. 6대 검색엔진별 순위는 핫봇에 이어 알타비스타 28%, 노던라이트 20%, 익사이트 14%, 인포시크 10%, 라이코스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들 6개 엔진을 병행해 혼합사용한 결과 1개 검색엔진만을 사용할 때보다 평균 3.5배나 높은 검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메타크롤러 같은 복합엔진 검색기 사용을 권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코스는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웹페이지를 검색 대상으로 하지않고 연구진들이 자의적으로 추출한 기술적 사항들만을 검색표본으로 사용했음을 들어 조사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⑤